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 제외 광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분양보증제한 활용 대책 강구

정부가 아파트 투기 과열 억제에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지에서 광주가 제외되면서 향후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분양가 상승 억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른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면서 적용 대상 가능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다. 광주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 대상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부수 조건이 있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더 이상 검토가 무의미하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으려고 전매제한 기간도 늘렸다.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광주는 현재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을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에서 광주가 제외된 데 대해 광주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의 3.3㎡(평)당 분양가가 1632만원. 그리고 서구 농성동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제'가 2367만원에 이르자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분양가 확대적용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 서구·남구·광산구가 지정된 점을 적극 이용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비교사업장'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보증이 거절된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후분양은 가능하다.

박금화 광주시 주택정책계장은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지가 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사·도시사의 요청으로 국토부장관 협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등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광주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는 서·남·광산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를 활용해 집값을 상승을 억제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건의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태극기 바람개비 12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한반도 모양으로 조성된 화단에 태극기 바람개비를 수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수출우대국 '가' → '가의2' 의견수렴 거쳐 9월 시행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 기존 백색국가는 거의 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거의 2

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신설되는 거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체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거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당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카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전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법상 맞지 않는 수출제한 조치를 가한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에서 28개국으로 줄게 됐다. 거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공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원칙상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우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 지역은 나 지역에 속한다. /연합뉴스

평화당 비당권과 10명 탈당 선언 ... "한국정치 재구성 대안 모색"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세운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6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관련기사 4면>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10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이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원내대표와 전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희·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으로 구성된 대안정치는 이날 중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안정치는 "평화당은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탈

당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는 "대안신당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오늘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 고 1 수능, 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

EBS 연계율 50%로 낮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크게 바뀐다. 국어 영역에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수학 영역의 가·나형 형태가 사라진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절대평가로 바뀐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가 12일 확정·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없었던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문학'을 필수로,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학도 가·나형으로 구분하는 대신 공통과목인 '수학 I'과 '수학 II'를 필수로,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보게 된다. 국어와 수학의 과목별 비중은 공통 75%·선택 25% 수준으로, 시험지는 '공통+선택'을 묶어 한권으로 제공한다. 기존 상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고, 원점수 45점(1등급)부터 5점 간격으로 9등급까지 구분된다. EBS 연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진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 이코노미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로 미래로 준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 Blue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
- Blue 투어**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 Blue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
- Blue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
- Blue 농수산**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전남
- Blue 시티**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전남 블루 이코노미란?
 전남만의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풍부한 블루자원과 수천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